

문예지 『진달래(ジンダレ)』에 나타난 ‘재일’의식의 양상*

이 승 진**
missest@daum.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재일의식, 그 원점 |
| 2. 50년대 문화운동과 서클 문예지 『진달래』의 창간 | 5. 나오며 |
| 3. 재일사회의 변화와 『진달래』의 변용 | |

Key word : ジンダレ(Jindallae), 在日文芸誌(Literary Magazine in Japan), 在日意識(In-Japan Awareness)

1. 들어가며

문예지『진달래』는 재일 1세¹⁾를 대표하는 시인 김시중(金時鐘)을 중심으로 1953년 2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발행되었다. 최근 복각본이 출판²⁾된 이 잡지는 5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본격적인 재일문예시집이면서, 김시중, 양석일(梁石日)과 같은 재일작가의 문학적 시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2A03044781).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1) 본고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명칭은 재일로, 1세대, 2세대 등의 세대 구분에 대한 명칭은 1세, 2세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재일을 둘러싼 명칭과 세대 구분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2) 大阪朝鮮詩人集團(2008) 『復刻版 ジンダレ・カリオン(全3卷別冊1)』 不二出版.

목받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재일 잡지는 문화적 공론장으로서 재일사회의 담론 형성을 주도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재일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재일 잡지는 재일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구현시키는 매개체로써, 재일의 일상과 정치를 관통하는 관심사를 공공적으로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재일에게 『진달래』가 발행되었던 50년대는 6.25 전쟁을 기점으로 분단 조국의 현실이 고착화되고, 그와 연동하여 임시적인 삶의 공간에서 정주의 공간으로 일본에 대한 질적인 의식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재일은 한편으로는 재일좌파조직의 노선변화에, 다른 한편으로는 2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일 의식의 발현이라는 내재적 요구에 직면했고, 『진달래』는 재일사회의 이러한 변화를 가장 첨예하게 비추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예지 『진달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복각본 발간 이후 일본에서 일부 성과물이 나오고 있을 뿐³⁾, 한국에서는 그 연구 자체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재일 잡지를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5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 정치에서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재일사회를 관통하는 다양하고 핵심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 『진달래』에 관한 연구는 재일을 둘러싼 일종의 ‘원초성’에 접근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재일 의식의 발현이라는 측면에 특히 주목하여, 역동적인 공론장으로서 『진달래』의 역할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50년대라는 편중된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선전을 위한 서클지로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목적에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역설적으로 ‘재일 의식’을 발아시켜가는 과정이 되짚어봄으로써, 문예지 『진달래』를 재일문학사라는 지평에서 조명해 볼 것이다.

3) 일본에서는 ‘진달래연구회’를 중심으로 『진달래』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성과로는 『진달래』 복각본의 별책 해설(大阪朝樺詩人集團(2008) 『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別冊1』 不二出版)과 ‘진달래연구회’가 발간한 저서(ゼンダレ研究会編(2010) 『『在日』と50年代文化運動の詩誌『ゼ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 人文書院)가 존재하며, 본론 또한 이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논을 진행함을 밝혀 둔다.

2. 50년대 문화운동과 서클문예지 『진달래』의 창간

『진달래』의 창간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무렵까지 재일사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정치지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진다.

“아마 민대(민족 대책부)중앙에서 내려 온 지령은 “문화서클을 만들어 무정치적인 청년들을 조직하라”, “서클지를 발행하여 조선전쟁에 있어 공화국의 정당성과 우위성을 선전하라”와 같은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진달래가 민대 중앙에서 상의하달 방식의 지령에 의해 창간된 서클시지(詩誌)였다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⁴⁾

김시중의 언급이 지시하고 있듯이 『진달래』의 창간이 명확한 정치선전의 목적 하에 이루어졌고, 나아가 민대⁵⁾라는 조직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아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우선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오규상은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⁶⁾ 안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나아가 일국일당의 원칙이 존재했던 상황 하에서 일본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전개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⁷⁾고 지적하는데, 당시 재일좌파조직운동이 일본공산당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진달래』의 이른바 초기-중기-후기에 이르는 내용적 변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특히 잡지의 시작단계에서 일본 내 사회주의세력이 추구했던 방향성이 거의 그대로 수렴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해방 이후 재일좌파조직과 일본공산당에 대한

4) ギンダレ研究会 編(2010) 『『在日』と50年代文化運動-幻の詩誌『ギ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 人文書院 pp.18-19.

5) 민족대책부(민대)란 일본 공산당 하의 조선인 당원을 위한 섹션을 지칭한다.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 編(2011) 『在日朝鮮人史資料集 2』 緑蔭書房 p.277) 참조.

6) 해방 이후 일본 각지에서 난립하였던 재일조직은 1945년 10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친 결성대회를 거쳐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으로 통합된다. 이 과정에서 조련의 초기 결성에 관여했던 일부 친일파와 반공주의자들이 배제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측 진청년동맹(건청)과 신조선건설동맹(건동)이 결성된다. 그리고 1946년 10월 3일 이들 단체가 통합하여 만들어 진 것이 재일본거류민단(민단)이다.

7) 吳圭祥(2009) 『ドキュメント 在日本朝鮮人連盟 1945-1949』 岩波書店 pp.83-84.

GHQ의 이념적 탄압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1948년을 전후하여 미국 대일정책이 일본 중립화 정책에서 반공기치화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체등규정령⁹⁾(団体等規正令)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갔고, 그 대상은 일본 내 좌익운동세력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당시 조련과 일본공산당은 단합을 통한 대처가 불가피했고, 특히 조선반도가 제주 4.3 사건과 6.25전쟁 발발과 같은 상징적 사건을 경유하여 이념적 대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두 세력은 함께 비공식적인 반미실력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력투쟁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특히 메이데이사건(マーデー事件)¹⁰⁾, 스이타사건(吹田事件)¹¹⁾, 오오스사건(大須事件)¹²⁾은 1952년이라는 예민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미국과 일본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그 결과 1952년 7월 21일 일본 정부는 단체등규정령의 후속인 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¹³⁾을 시행하였고, 일본 정부의 엄정한 대처에 직면한 재일좌파조직과 일본공산당은 실력투쟁에서 문화운동으로의 노선전환을 피

-
- 8) 재일조선인의 대미 투쟁 경위에 대한 부분은 『진달래』 북각본의 별책 해설(大阪朝鮮詩人集團(2008) 『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別冊1』 不二出版)과 앞에서 언급한 오규상의 저서(吳圭祥(2009) 『ドキュメント 在日本朝鮮人連盟 1945-1949』 岩波書店) 내용을 일정부분 참조하고, 이를 보완 갱신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 9) 1949년 4월 4일 ‘폭력주의적, 반민주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 규제를 목적으로 내려진 법령으로 재일본조선인연맹과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 또한 이 법령의 대상에 해당되어 해산처분을 받게 된다.
- 10) 1952년 5월 1일 도쿄에 위치한 천황의 거처에서 테모대와 경찰부대가 충돌한 사건이다. 일본좌익 단체가 무력혁명준비 실천의 일환으로 일으켰고, 해방 이후 첫 학생운동자 희생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중경상자가 나온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피의 메이데이 사건’이라 불린다.
- 11) 1952년 6월 24-25일에 걸쳐 오사카 스이타시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으로 한국 전쟁을 비판하며 일본 전국에서 반미, 반전 투쟁을 펼치고 있었던 재일조선인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다. 당시 마찬가지로 무장투쟁노선을 걷고 있던 일본 공산당 또한 이 투쟁에 동조했다.
- 12) 1952년 7월 6일 일본 나고야 오오스구에 위치한 오오스야구구장에서 일본공산당원과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군중이 미국군시설과 경찰서를 습격한 사건. 표면상으로는 사회당을 중심으로 베이징에서 행한 일중무역협상을 계기로 일어났으나, 당시 일본사회주의 세력의 무력실력투쟁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13)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 규제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그 활동에 관한 형벌규정을 보완한 법률로 특히 천황에 대한 직접적인 소요를 일으켰던 메이데이사건에 대한 반항으로 입안, 시행되었다.

할 수 없었다¹⁴⁾.

문예잡지 『진달래』는 정확히 이러한 재일좌파운동의 전환점에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시 『국제신문』등 다양한 사회주의 계열 미디어 공간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시 창작 활동을 하는 한편, 민족학교 부활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김시중에게 그 중심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김시중은 『진달래』 창간 당시를 떠올리며 “완전한 비전문가들의 모임으로 나는 조금 선배역할만 하면 되겠다는 정도의 인식”¹⁵⁾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간호 발간에 관여한 구성원은 다른 이름으로의 중복 게재를 제외하면 7명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 시 창작의 경험을 가진 이는 김시중과 권경택(창간호에서는 김민식과 권동택이라는 필명으로 발표) 2명뿐이었다¹⁶⁾.

이처럼 『진달래』는 일본 내 사회주의 세력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따라서 잡지의 창간을 추동한 정치적 목적이 재일좌파조직의 특수한 조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내 사회주의 세력의 공통된 이상 추구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이후 필연적으로 재일사회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특수성을 자각해가는 과정에서, 재일좌파조직과 일본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이 분기해 갈 가능성은 충분히 예기(予期)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히 두 세력 사이의 이념적 차별화뿐 아니라, 좌파조직운동 방식에 대한 재일 내부의 이견과 갈등으로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달래』는 재일좌파조직의 변화를 가장 첨예하게 반영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4) 宇野田尚哉는 『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別冊(解説)』(不二出版, 2008, p.9)에서 “과과 활동방지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대규모의 실력투쟁이 어려워지게 된 후 실질적으로 수정되었다고 봐도 좋다……이 수정이 ‘실력투쟁에서 문화투쟁으로’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5) ゼンダレ研究会 編(2010) 『「在日」と50年代文化運動-幻の詩誌『ゼ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 人文書院 p.70.

16) 宇野田尚哉(2008) 『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別冊(解説)』 不二出版 p.10.

3. 재일사회의 변화와 『진달래』의 변용

아무리 해방되어도 우리들의 현실은 노예와 같다. 우리들의 시가 아니더라도 좋다. 이러한 저항의 외침은 시 이상의 진실이 있다. 아리랑과 도라지는 너무 슬퍼서 노래가 아니다. 노래 가사에 변혁이 있어야 한다(7).

아마추어들이 모인 정치적 시 창작집단이라는 김시중의 인식과 함께 『진달래』는 초기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한다. 문화운동의 도구로 시작된 문예시집이라는 지향점 아래 초기의 『진달래』는 크게 시 작품을 중심으로, 주장(사설적 성격), 안테나(소식), 르포르타주(취재기사), 편집후기의 구성을 통해 재일의 정치적, 일상적 발언을 충실하게 담아내었다. 특히 이 시기에 실린 작품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잡지 구성원의 정치적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본공산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인민(노동자)의 시점에서 잡지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5호(1953.12)에서 다수 등장하는 마쓰가와사건(松川事件)¹⁷⁾에 대한 글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정부의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을 남한 빨치산의 고통과 같은 주제와 함께 교차적으로 등장 시킴으로써 재일의 문제를 일본 내 사회주의 세력이 직면한 어려움과 연계시켜 파악하려는 태도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한국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미국제국주의와 일본 파시즘의 재결합과 같은 이념적 구도에서 바라 보려 한 작품들에서 이러한 태도는 그대로 반복되는데, 이는 가급적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 남쪽의 인민들 또한 자신들과 같은 노동자임을 부각시키려 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재일의 참혹한 일상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 예를 들어 3호(1953.6)의 ‘생활의 노래 특집’과 5호의 ‘여성시인 특집’, 그리고 그 외 「버프공의 죽음」(홍종근:5호)과 「오사카 길모퉁이」(김희구:5호) 등 일상생활에 밀착한 시작품이 다수 등장하는 것이

17) 金時鐘(2008) 『復刻版 ギンダレ・カリオン 第一巻』 不二出版 1号: 創刊の言葉

18) 1949년에 발생한 철도 테러 사건으로 당초 일본 공산당 지지층인 도시바 마쓰가와 공장원들이 의심 받았다. 이후 불잡힌 인물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되면서, 이 사건이 공산당 탄압을 위한 일본 정부와 연합국 사령부에 의한 공작이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특징인데, 여기에서도 재일의 힘겨운 삶을 자신들을 향한 일본사회의 차별구조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노동자와 지배계급간의 불균형한 역학관계에서 바라보려 한 시선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달래』의 이와 같은 기초는 6.25 전쟁이 휴전을 맞으면서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한다. 주지하다시피 6.25 전쟁 이후 재일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분단조국의 현실화와 정주의 대상으로서 일본에 대한 재인식이었다. 그리고 당시 재일좌파조직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조국=조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분위기에서, 돌아가야 할 고향의 상실은 현실이 아닌 ‘관념으로서의 조국’이 고착화됨을 의미했다¹⁹⁾. 바로 여기에 이후의 재일사회를 관통하는 물음이 소재하는데, 바로 ‘관념으로서의 조국’과 ‘현실로서의 재일’이라는 상반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다.

이 물음에 대해 당시의 재일좌파조직은 ‘관념으로서의 민족성’을 지속적으로 재일에게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해답을 모색한다. 일본공산당과 차별된 ‘민족’ 지향적인 조직으로의 변모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당시 조직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던 『진달래』가 이러한 노선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 사회주의 세력과의 공통인식 아래, 동일한 인민(노동자)의 입장에서 재일의 삶을 바라보았던 초기 『진달래』의 성격은 이내 나이브한 민족허무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조직의 급격한 노선변화는 『진달래』내부에 새로운 물음을 탄생시키는데, 이념이나 민족만으로는 해명 불가능한 ‘현실적 삶으로서 재일’이라는 과제가 그것이었다. 특히 『진달래』의 중심인물인 김시종의 의문 제기는 이후 잡지가 겪게 될 변화를 징후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조국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모든 관점을 여기에 연결시켜 평화와 승리를 절규하지 않고서는 그 작품을 매듭지으려고 하지 않는 딱딱한 생각, 아니 의식하려고 노력한 관점, 게다가 대부분이 낮은 조국이 모티브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작품은 관념적

19) 金英達·高柳俊男 編(1995) (『北朝鮮歸國事業關係資料集』新幹社 p.250)에는 총련의 결성에 1954년 8월 30일 북한외상이 발표한 재일 조선인=‘공화국 공민’이라는 규정이 재일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남한 출신이 8.9할을 차지하였던 다수 재일에게 조국 분단의 고착화는 실재하지만 당장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상실을 의미하였다.

으로 되기 쉽고, 격한 분노를 담은 작품이라도 그 호소는 허공에 울려 퍼졌다. 이 폐해는 단지 작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진달래의 고민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우리집단의 정치색의 강함이다. 프로파간다를 강조한 나머지 그 필요성을 너무 강요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회원들은 자신의 주변 일을 쓴 작품을 보고 머뭇거리기 수밖에 없다……거침없고 자유로운 집단이고 싶다. 거침없이 작품을 쓸 수 있고 발표 할 수 있으며 즐겁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이고 싶다.²⁰⁾

명확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진달래』가 회를 거듭하면서 명실상부한 50년대 재일 문예시집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은 김시종도 예기치 못했음이 틀림없다. 또한 6.25 전쟁 휴전과 스탈린의 죽음을 계기로 재일좌파 운동이 근본적인 전환점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시 창작 행위의 의미에 대해 일부 구성원들이 심각하게 회의하기 시작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것이다. 시(문학)의 정치 도구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로서의 재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점점 더 소외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6호(1954.2)에서 제기된 김시종의 물음에 대해, 곧바로 같은 호에서 “시는 전투의 무기”²¹⁾라고 대답한 김민(金民)의 반응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당시 『진달래』의 구성원 다수가 여전히 재일좌파조직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많은 회의적 물음들을 봉인하고 있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한편으로 모더니즘적 시 창작을 선호했던 정인(鄭仁)과 같은 신인이 7(1954.4)호부터 가담하여 10호(1954.12)에서 편집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어 시 창작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국어작품란(12호(1955.7)에서 시작)이 따로 구성되고 북한체재를 옹호하는 프로파간다 시 창작이 확대되어 간 현실은 『진달래』구성원 다수가 조직의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는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²²⁾의 결성 이후 재일좌파조직

20) 金時鐘(2008) 『正しい理解のために』(『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第一巻』不二出版 6号).

21) 金民(2008) 『いま一つの壁を突破ろう』(『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第一巻』不二出版 6号).

22) 1955년 2월 조일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움직임 이후, 종래 재일조직을 지도하던 일본공산당과 재일조직 모두 노선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1951년 결성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의 재정비는 불가피한 작업이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일본조

이 본격적으로 일본공산당과 차별된 노선을 걷기 시작한 현상과 관련 깊은데, 후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²³⁾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소원해 진 상황은 오히려 조총련에 대한 북한 노동당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에 따라 김시종을 비롯하여 당의 방침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일부 조직원들을 향한 비판은 점차 커져 갔고, 잡지 구성원 간의 알력과 갈등은 13호(1955.10)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조직이 급격하게 경직해 가는 흐름 속에서 6호 이후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예술과 정치 논쟁이 재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당시 조총련의 조직운동은 김일성 우상화와 민족적 주체성 확립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는데, 양쪽 모두 일부 재일에게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의문점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시종과 같이 일제 식민지기에 ‘황국소년’을 경험했던 1세들에게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정책은 스스로의 ‘원죄’(천황숭배)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윤건차는 ‘초월자 혹은 공동환상’이라는 용어로 천황제가 식민지기의 조선인에게 가능했던 과정을 설명하는데²⁴⁾, 일부 1세들에게 김일성 우상화를 근간으로 한 주체 사상이야말로 자신들이 경험한 식민지기 황국신민이라는 ‘공동환상’ 뒤에 숨겨진 허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고, 김일성 우상화는 역설적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의 대안으로 무조건적인 선망의 대상이라는 지위를 점할 수 있었던 북한체제에 대한 정시(正視)를 불러오는 것이었다.

또한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재일 2세들에게 ‘조선인은 조선어로 노래해야 한다’는 조직의 방침은 자신의 민족성 결핍에 대한 내적 물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이었다²⁵⁾. 모국어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는 다수

선인총연합회가 결성되게 된다.

23) 1956년 2월 후루시초프는 스탈린에 의한 대숙청과 억압, 독재가 지나쳤다고 비판한다. 이후 정치범의 석방과 숙청되었던 인물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姜尙中(2004)『在日』講談社 p.34).

24) 尹健차는 『『在日』を生きるとは』(岩波書店 1992 p.108)에서 “천황제가 현실 사회적 관계와 여러 가지 차별, 억압적 환경의 저편에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생의 불안을 메꿔 주는 “초월자” 혹은 “공동환상”이라는 장치로 기능한 가운데, 갈 곳 없는 비참함 속에 꼼짝 못하던 재일조선인은 자신들의 내적 모순을 덮어 줄 ‘절대 감정’에 의해 사교 질서의 변혁을 강요당했다고 봐도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25) 호소미 가즈유키는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어문학사 2013 p.45)에서 “새로운

2세대에게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실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조총련의 조직운동은 한편으로는 재일에게 민족적 각성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로서의 재일’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방 이후에도 구중주국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재일들이 이와 같은 의문들을 봉인한 채 조직(조국) 아래로 집결할 수밖에 없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재일을 향한 일본이라는 차별구조에 앞에서, 조직 내부를 향한 의문들은 후순위에 위치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진달래』와 같은 첨예한 문제의식의 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제기 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시종과 더불어 10호부터 본격적으로 잡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 정인(鄭仁)의 등장이 그 계기가 된다. 실제로 정인은 정치선전적인 시 창작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진달래』에 대한 적극적인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데, 예를 들어 10호에서 시 창작을 둘러싼 정례연구회를 시작하면서 잡지 전반에 걸쳐 예술적 고양을 재촉한다. 그리고 이 활동이 결과적으로 13호의 ‘시 평론’과 ‘개인 시 특집’ 시리즈²⁶⁾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진달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인은 13호에서 자신과 아다치(足立)시인집단²⁷⁾과의 서신왕래를 잡지에 소개하면서 스스로 그 논의를 중심에 서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아다치 시인집단이 ‘대중투쟁’의 수단으로서 시의 존재가치를 주장한데 반해 자신은 ‘시 본연의 감동’에 주목한 창작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논쟁은 『진달래』 내부 구성원 간의 활발한 논쟁을 야기하면서, 이른바 서클문예지였던 『진달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소박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내지는 당의 문화공작의 도구였던 『진달래』가 나

방침으로 좌파 재일 조선인을 다시 결집하려는 의도로 『진달래』, 특히 그 중심에 있던 김시종은 ‘나쁜 사상의 표본’으로 지목되어 철저한 조직 비판에 직면했다. 애당초 일본어로 창작하는 것 자체가 ‘민족허무주의’라고 매도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6) 13호의 권경택 작품 특집을 시작으로 14호의 이정자, 15호의 김시종 연구 특집이 이어진다.

27) 도쿄 아다치구의 이시하라 병원 환자와 연계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시인 그룹 (호소미 가즈유키(2013)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 어문학사 p.48) 참조.

름의 자립성을 지닌 본격적인 동인지로 변용해 가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재일의식, 그 원점

시 창작을 둘러싼 성찰을 통해 ‘재일’, ‘2세’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형화된 것. 그런 의미에서 『진달래』에 재일문학의 원점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²⁸⁾

우노다 쇼야(宇野田尚哉)는 ‘재일’과 ‘2세’라는 재일의 고유성을 정형화시켰다는 점에서 『진달래』에서 “재일문학의 원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재일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재일의식’의 원초성으로서 『진달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고찰하기 전에 우선 13호 이후 활발히 전개된 『진달래』의 시 논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이 13호의 정인과 아다치 시인집단과의 논쟁에서 시작되었음은 이미 언급했으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시점에도 잡지의 주요한 기류가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노래해야 한다’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다는 사실이다. 13호의 권두언(卷頭言)이 “모국어를 모르고서는 진정한 조국을 모르고, 조선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알고 동포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달래』구성원 다수는 여전히 대중투쟁의 일환으로서 시 창작을 선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인이 13호 편집 후기에서 아다치 시인집단에 대한 자신의 답변에 대해 “나의 대답이 진달래 전체가 아니라 나 개인의 편지가 된 것은 다소 유감입니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당시 『진달래』의 분위기를 확인시켜 준다. 또 정인이 같은 글에서 “향후 회원 제군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제기하자마자 14호(1955.12)에서 송익준(宋益俊)의 즉각적인 반론에 부딪힌 것도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송익준

28) 宇野田尚哉(2010) 『「在日」と50年代文化運動-幻の詩誌『ヂ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ヂンダレ研究会 編 人文書院 p.28).

은 13호에서 정인이 아다치 시인집단과의 서신에서 “우리는 ‘재일’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 있고,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조국을 그리고 노래하라고 해도 슬로건 시나 유형범주로 끝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일찍이 우리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잘못된 지도이론에 의해 조국의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투쟁보다도 일본에 있어서의 모든 모순을 폭로하고 소탕하는 것이 제1의 임무라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습니다.²⁹⁾

주목할 점은 송익준의 정인 등을 향한 비판이, 단지 ‘재일하는’ 태도에 대한 현 시점의 논쟁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진달래』의 창작태도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의 조총련 안에는 기존의 조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운동과 확연하게 차별되는 방침을 모색하면서, 그동안 재일 좌파조직운동이 걸어온 발자취 전부를 부정의 대상으로 규정 지으려는 움직임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의 운동은 점차 현실(일본)의 삶과 거리를 둔 방향으로 전개해 갈 수밖에 없었고, 필연적으로 일부 재일의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14호 바로 다음에 이어진 홍윤표와 김시종의 ‘유민의 기억’ 논쟁(15호(1956.5), 16호(1956.8))은 이러한 『진달래』 내부의 반목을 결정짓는 사건이었다.

‘유민의 기억’ 논쟁은 김시종의 시집 『지평선』에 드러난 시적 감수성에 대한 홍윤표의 지적에서 촉발된 것인데, 이미 6호에서 징후를 보였던 김시종의 정치적 시 창작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이 논쟁을 통해 가속화된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촉발된 논의가 문학과 정치 논쟁이라는 범주를 뛰어 넘어 ‘재일’의 실존적 문제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우선 ‘유민의 기억’ 논쟁의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시종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지향하면서도 시집 『지평선』의 작품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유민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인의 감성이었다. 여기에 시인 김시종의 모순이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시종은 그

29) 宋益俊(2008)「『詩の在り方をめぐって』 鄭仁君への反論」(『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第二巻』 不二出版 14号).

내부에 유민적인 서정을 품은 채 현대시적인 시야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³⁰⁾

홍윤표의 탁월한 통찰력이 간파하고 있는 대로, 내 작품의 저류는 ‘유민의 기억’이다. 이것을 내 식으로 말하면 내 작품의 발상의 모체가 내 과거에 얽힌 민족적인 비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 손은 젖어있다. 물에 젖은 자만이 갖는 민감함으로 어떠한 작은 전류조차 내 손은 그냥 지나치는 것을 거부한다. 설령 그것이 3볼트 정도의 전기 작용이어도 내 손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두려워한다. 여기에 내 주된 시의 발상의 장이 있다. 내가 놓인 일본이라는 현실조건 속에서 내가 굳이 현대시에 참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나는 이 민족적 경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³¹⁾

‘유민의 기억’ 논쟁이 ‘재일하는’ 현실과 조국 사이에서 갈등하던 재일의 관심을 끌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시종은 자신에게 유민의 기억은 ‘말살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파헤쳐야 할 초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이 무렵부터 잡지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양석일(梁石日)³²⁾과 같은 존재에게 김시종이 지적한 ‘유민의 기억’은 다른 무엇보다 시창작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2세들에게 1세의 ‘유민의 기억’은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재일하는 현재’로 환치 가능한 것이며, 지금 일본을 살아가는 방식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확고한 민족적 정체성을 뿌리에 두고 조직 활동에 매진하였던 재일 1세가 ‘일본어’와 ‘모국어’ 내지는 ‘조직(민족)’과 ‘재일’과 같은 첨예한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했다는 사실이 당시 재일사회에서 얼마나 획기적이며 충격적인 파장을 불러왔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강한 반발이라는 형태로 김시종과 같은 입장에 선 시인들에게 밀려 왔을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김시종과 조총련으로 상징되는 상반된 입장의 충돌이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는데, 김시종은 17호(1957.2)의 『뱀과 맹인의 입씨름』의

30) 洪允杓(2008) 『流民の記憶について』(『復刻版 ゾンダレ・カリオン 第二巻』不二出版 15号).

31) 金時鐘(2008) 『あたしの作品の場と「流民の記憶」』(『復刻版 ゾンダレ・カリオン 第二巻』不二出版 16号).

32) 양석일은 15호부터 중간호인 20호(1958.10)까지 참여하는데 15호부터 19호까지는 본명인 양정웅(梁正雄)으로, 중간호인 20호에는 필명인 양석일로 등장한다.

식의 정형화와 시를 중심으로』³³⁾의 시작 부분에서 조직의 잦은 노선 변화와 무조건적인 애국심 요구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재일이 ‘일본어로 시를 쓴다’는 행위의 의미에까지 논의를 확장해 간다. 이른바 『진달래』의 내용과 형식, 표현수단을 둘러싼 두 세력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의 시작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그동안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던 일부 젊은 세대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기 시작한다. 조삼룡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19호(1957.11)에서 그는 김시종이 제기한 ‘의식의 정형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받아 다음과 같은 글을 실기에 이른다.

우리들의 정형화된 의식의 근원은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우리들은 전혀 다른 조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식만은 한 시대 전에 형성된 것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도 그리고 일본어로 시를 쓰는 많은 사람들도 일본어로 자신을, 세계를, 우주를 인식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는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³⁴⁾

흥미로운 것은 조삼룡의 의견이 재일 2세적인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조삼룡이 2세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정형화된 의식, 다시 말해서 예술이란 조국을 미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관점의 근원을 한 세대 전에 형성된 것으로 포착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일본어로 시 창작을 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는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와 같은 태도에서도 반복 되는데, 인간이 자립해가는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언어조차 잃은 채 구중주국을 살아가야 하는 재일세대의 ‘원초성’을 2세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발언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달래가 처음 비판 받는 과정에서 내가 재일이라는 문제에 개입한 것은 정인과

33) 金時鐘(2008) 『盲と蛇の押問答—意識の定型化と詩を中心に』(『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第二巻』 不二出版 18号).

34) 趙三龍(2008) 『定型化された意識と詩について』(『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第二巻』 不二出版 19号).

양석일 같은 제일 2세 토박이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제일 세대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인도 양석일도 자신의 조국어를 모르고 조국의 문헌조차 원어로 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출신을 마지막까지 집착하면서 조선인으로서 산다는 사실에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문화권에서 격리된 채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일본이라는 무권리상태를 강요받는 차별구조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층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출신에 최후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굽히지 않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체성이며, 제일문학의 원점이자 창작의 원점입니다.³⁵⁾

김시종이 정인과 양석일과 같은 2세를 만나면서 ‘재일이라는 문제에 개안했다’고 증언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조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이상, 재일에게 ‘유민의 기억’은 언제까지고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재일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한, 현실적으로 조국에 대한 확고한 지향성만으로 재일이 당면하게 될 과제 전체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재일하는 현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1세에게도 공통되는데, 김시종은 2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재일로서의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재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일본이라는 현실을 한쪽에 짊어지면서도 자신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삶의 태도에야말로 재일의식의 ‘원초성’이 소재한다는 것을 그는 포착했던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라는 이른 시기에, 문예시집 『진달래』는 이후 세대들이 직면하게 될 재일의식의 원형을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이 예민한 감수성을 무기로 한 시 창작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취한 결과이든, 문학과 정치 논쟁이 불러 온 예기치 못한 부산물이든, 『진달래』는 전체 재일세대를 관통하는 시원(始原)적 물음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이후 『한양』(1962~), 『삼천리』(1975~), 『민도』(1987~), 『청구』(1989~) 등 다양한 문화적 공론장을 경유하면서 그 해답을 모색하는데, 바로 여기에 50년대 재일문예지 『진달래』의 재일문학사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5) 金時鐘(2008) 『『在日』と50年代文化運動の詩誌『ヂ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ヂンダレ研究会 編 人文書院 PP.76-77).

5. 나오며

2008년 다시 우리 앞에 실체를 드러낸 문예잡지 『진달래』는 재일문학사를 조망할 때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재일 잡지 미디어로서 재일 1세와 2세를 아우르는 재일담론과 시 창작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문학과 정치를 둘러싼 알력을 경유하여, ‘재일의식’의 원형을 담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진달래』는 1950년대라는 시대의 변곡점에서 가장 첨예한 형태로 ‘재일의식’을 받아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했다.

해방 이후 분단 조국이 현실화되고, 일본이라는 공간이 정주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재일은 ‘관념으로서의 조국’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로서의 재일’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해답 없는 질문에 직면해야 했는데, 『진달래』는 시 창작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그 해답을 모색한 것이다.

1958년 20호를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진달래』의 운명과는 달리, 정치라는 일방적인 논리 앞에서 치열하게 실존을 모색해야 했던 재일의 고뇌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예지 『진달래』에는 재일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가 소재하며, 향후 그 문학사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参考文献>

- 大阪朝鮮詩人集團(2008) 『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別冊)』 不二出版, p.9, 10.
 宇野田尚哉(2008) 『復刻版 ゼンダレ・カリオン 別冊(解説)』 不二出版 p.10.
 吳圭祥(2009) 『ドキュメント 在日本朝鮮人連盟 1945-1949』 岩波書店, pp.83-84.
 金英達・高柳俊男 編(1995) 『北朝鮮帰国事業関係資料集』 新幹社, p.250.
 姜尙中(2004) 『在日』 講談社, p.34.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 編(2011) 『在日朝鮮人史資料集 2』 緑蔭書房, p.277.
 ゼンダレ研究会 編(2010) 『「在日」と50年代文化運動-幻の詩誌『ゼンダレ』『カリオン』を読む』 人文書院, pp.18-19, 28, 70, 76-77.
 尹健次(1992) 『「在日」を生きるとは』 岩波書店, p.108.
 호소미 가즈유키(2013)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중』 어문학사, p.45, 48.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Aspects of ‘In-Japan’ Awareness in Literary Magazine 『Jindallae(ジンダレ)』

A literary magazine 『Jindallae』 appeared again in front of us in 2008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taking a view of the literary history in Japan. Since, as one of magazine media in Japan, it was a place for In-Japan discourse and poetry creation merging the 1st and 2nd generations of Koreans in Japan, succeeding in incorporating an archetype of In-Japan awareness of ‘In-Japan’ and the ‘second generation’ going through a friction around literature and politics. 『Jindallae』 made ‘In-Japan awareness’ sprout most radically at the point of the periodic inflection in 1950s, taking its role faithfully as an arena of the public opinion in terms of such issues.

In a situation that divided nation came to be actualized and the space of Japan came to be recognized as an object of settlement after liberation, as for an unanswerable question about ‘homeland as an idea’ or ‘In-Japan as the reality’ Korean residents in Japan had to face, 『Jindallae』 tried to find out an answer through serious discussions on poetry creation.

In contrast to the destiny of 『Jindallae』 that was discontinued with the final issue No. 20, 1958, A task 『Jindallae』 suggested, in other words, still remaining suffering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had to grope for the existence fiercely facing the unilateral logic of politics may be said to prove the value of 『Jindallae』 in the literary history in Japan. In addition, it is regarded that a literary magazine 『Jindallae』 has clues for various problems penetrating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So, hereafter it is required to conduct studies continually related to this issue.